



회원사 동정

회원사 동정

한 ● 국 ● 원 ● 자 ● 력 ● 연 ● 구 ● 소

‘하나로’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에 활용

한 국원자력연구소(소장 장인순)가 운영중인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가 민간 기업의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제품화에 활용된다. 원자력연구소는 ㈜삼영유니텍(대표 정경일)과 ‘하나로’의 기반 시설과 관련 기술을 이용,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 사용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하나로의 기반시설을 활용하면 방사화학적 순도가 높고 품

질이 우수한 진단용의 Tc-99m과 뼈 통증 완화 치료제인 Sr-89의 생산이 가능하다.

원자력연구소 관계자는 “방사성동위원소 대부분을 수입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로를 활용한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가 본격 생산, 제품화되면 연간 30억원의 수입 대체 효과와 함께 향후 100억원의 해외 수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 ● 자 ● 력 ● 의 ● 학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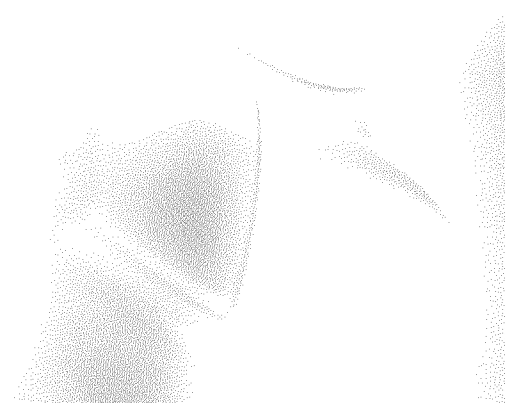
PET/CT 국내 최초 설치

원 자력의학원(원장 심운상)이 PET와 CT를 결합한 첨단 암치료 장비를 본격 가동했다. 원자력의학원은 종래 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에 ‘8슬라이스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를 결합한 PET/CT를 국내 최초로 설치해 시험 가동을 거친 후 10일부터 환자 진료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암 진단 장비인 PET/CT는 CT의 우수한 해부학적 영상과 PET의 생화학적인 정보를 결합해 종양의 발생 유무와 위치, 형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비다.

원자력의학원은 “PET/CT 가동으로 그동안 PET 검사시 해상도가 낮아 병소의 정확한 위치나 주위 장기와의 관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암 진단의 정확성을 한 차원 높였다”고 밝혔다.

PET/CT는 한 번의 촬영으로 CT와 PET를 동시에 촬영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병소의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CT와 PET를 별도로 검사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 준다. 또한 검사시간을 약 20분 단축할 수 있으며 촬영 결과를 곧바로 치료 계획에 사용할 수 있다.



방사선 비상진료교육 실시

원 자력의학원(원장 심운상)은 방사능 사고 발생시 비상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군과 민의 구조대 요원을 대상으로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에서 “방사선 비상진료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과정은 방사선 사고시 응급조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원자력 방재대책,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관리, △핵전쟁시 군의 방사능 의료대책,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방사선 사고시의 구조, △방사능 사고시의 현장처치, △방사능 제어 및 실습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서울대 대학원생의 방사능 누출 오인 소동과 방사성동위원소(Cs-137) 분실 사건으로 방사능 사고에 따른 응급조치 및 안전관리가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실시되는 이번 교육에는 군 화생방방호사령부와 중앙 119구조대의 방재관련 요원들이 참석하여 교육을 받았다.

원자력의학원은 지난해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개소하여 전국 10개의 방사선비상진료 지정병원, 군의 의무사령부 및 화생방방호사령부, 그리고 119구조대의 비상진료 및 방재관련업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방사성동위원소 치료병동 설치

원 자력의학원(원장 심운상)은 방사성동위원소(RI)를 이용해 갑상선암, 자궁경부암 환자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사성동위원소 치료병동'을 설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안에 설치된 치료병동은 RI병실'과 RT(방사선치료)병실'로 나뉘어 운영되며, 방사능 사고시에는 방사선 피폭환자에 대한 응급진료센터로 이용된다.

이 치료병동은 국내 최대 규모인 7개의 RI병실과 6개의 RT병실, 환자 모니터링시스템, 방사성동위원소 감지시스템, RI전용 정화조 등을 갖추고 있다고 병원측은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갑상선암의 경우 수술 후 방사성동위원소 치료를 받으면 90.6%의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어 입원 치료가 중요하다”며 “방사성동위원소 치료를 받기 힘든 타 병원 환자들에게도 치료병동을 개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 ● 방 ● 공 ● 사 ● 강 ● 남 ● 병 ● 원

病 무료상담 웹사이트 운영

인 터넷 포털사이트 'MSN'에서 '암'을 검색하면 맨 처음으로 뜨는 웹사이트가 '암이란'(www.am2ran.com)이다. 포털사이트 '야후'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위암 여성암 유방암 폐암 간암 대장암 클리닉 운영, 암 치료 병원을 소개하며 상담의사의 E메일 주소와 암환자 가이드 제공”이라고 간략하게 소개돼 있다.

이 암 전문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가 지방공사 강남병원 치료방선과 최상규 과장(39)이다.

최씨는 이 사이트를 통해 암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로 상담도 해준다. 상담은 사이트를 통해 공개적으로 하거나, E메일을 통해 개별적으로 이뤄진다. 또 부가적으로 암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 섭취와 약품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전문 사이트를 연결시켜 준다.

최씨가 이 사이트를 개설한 것은 지난 1999년. 한림대 의대를 졸업, 강동성심병원에서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가 된 뒤 서울대병원 전임의를 거쳐 강남병원에 부임한 지 1년쯤 지나서다. 한창 인터넷 붐이 일던 당시 환자들이 암이라면 사형선고로 알고 낙담하지만 지식이 있으면 조기치료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시작했다.

처음 A4용지 서너장 분량으로 내용을 만들었는데, 방문자와 상담자가 크게 늘어나 지금은 무려 1000여장 분량으로 확대됐다. 심지어 남미나 유럽의 교포들도 상담해올 정도다.

그 사이 상담의사도 분야별로 세 명이나 늘었다. 애초 스스로 배워서 만들었던 홈페이지도 지난해 10월 암 관련 정보 제공 대가로 관련회사로부터 받은 400만원을 들여 세련되게 새 단장했다.

그 후 상담은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전

하루 10명 수준에서 5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늘고 있는 추세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아예 수술기록이나 검사결과를 스캔으로 떠서 구체적으로 묻는 바람에 답변에 조심스러워질 정도. 애초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다.

“처음엔 가벼운 봉사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예상보다 호응이 컸고, 중도에 힘들어서 그만둘까도 생각했지만 보람도 있어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지금은 필요할 경우 질문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상담해 주기도 합니다. 이럴 땐 상담자가 무척 좋아하죠.”

최씨는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영양사와 혈액종양내과 분야의 전문가를 보강할 생각이다. 장기적으로는 암에 관한 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암 전문 포털사이트로 만들 계획.

국 ● 립 ● 암 ● 센 ● 터

“암세포만 골라 파괴”

정 상세포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양성자 치료기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다.

국립암센터(원장 박재갑)는 21일 일산에서 지하 3층, 지상 1층의 양성자 치료센터 기공식을 갖고 내년 9월 양성자 치료기를 설치해 2005년 1월부터 본격적인 치료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이 치료기는 정상세포를 피해가며 암 세포에만 집중적으로 방사선을 쬐어 줌으로써 후유증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 양성자는 같은 방사선량으로 광자나 전자선에 비해 훨씬 높은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양성자 치료기는 암세포 주위에 정상 세포조직이 있는 뇌암, 폐암, 안구암, 소아암 등의 치료에

효과가 높으며, 특히 안구암의 경우 기존 방법으로는 불가피한 실명을 막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비 값이 워낙 비싸 도입 초기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다른 치료방법으로는 실명이 불가피한 안구암 환자부터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